

# 예술에 대해 생각하기

## 소 개 말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글을 쓰는 방법 외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지인과 대화를 (음성, 글 소리)를 시각화 해주는  
'채팅' 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제 생각을 풀어보았습니다.

문단의 전체적인 배치는 소리를 시각화하는 또 다른 표현인 '이퀄라이저' 의 모양을 본 따졌습니다.  
(\* 이퀄라이저 : 오디오 기기의 전면에 붙여서 음파를 표현하는 부분)

하단의 막대는 쪽 표시를 대신하여 시간이 지난 정도를 나타냅니다.

좌측에 ' 32' 와 ' 35' 는 각각 '한국의 32살 이명의 남자' , '한국의 35살 이명의 여자' 를  
뜻합니다.

준비돼어?  
 음...그러면 저 어느정도 제한을 받게  
 이다 시간이 시간 정도로 하고  
 예시에 강력한 내용엔, 외화공시로  
 무용, 영화, 음악...이런쪽은 빼고  
 편집은 가능하면 최소화 할꺼야.  
 그리고..되도록..나를 사용하는 거로 하고..  
 음...중아...  
 먼저..예시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사전적 정의는 제쳐두고... 일단 현대 이전의 예시이라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이아트 중심으로 보자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이차아  
 그게 현대에 들어오면서 예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희석되어져다거나 할까  
 명확하지 않은거 같아  
 어떤 게 예시라고 어떤건 예시가 아니냐를  
 나누는 건 부의미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냥 모든 것이 예시라고 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하거든.  
 예시의 어원은 한제일 피오는 어다는 거에 동의 하다고 얘기가 켜나는게 아니냐  
 그러다보면 좋은 예살과 그렇지 않은 예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  
 근데..제출하게 의식하면서 쓰니까..마음가 좀 그러다  
 음...어떤편이라기보다..  
 만약 내가..학작자의 입장이라면  
 내가 민화를 그리다고 가정하면  
 이 민화가 과연..리퍼스트인가..아니면 예살인가에 대한 고민은 의미가  
 없을까라는거야  
 회화에 한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야  
 의사 얘기는 접어두고  
 구분이 의미가 어다는 얘기는 모든것이 다 예살이라는 말이아니라  
 이게 리퍼스트일거야...이거 오히려나까 예살구미야..이런 구분은 피오 어은거 가다  
 자기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결과물이 어쨌든가예?  
 그렇다면...  
 가끔 미디어에 나오는데  
 예살인가 구미로 그러다더가..코피러가 구미를 뿌리다더가 해서 미룬어지 자됨?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살의 영역안에 속해있지 않은가?  
 의도라는 말이 좀 모호한거 같  
 부의도를 의도할수도 있는거잖아  
 그러다보면 의도를 외면이 것어네 결과물이 과연 이윤까?  
 음...내가 예전에 얘기한 윌레드 쿠인 같은 경우는?  
 음...  
 가이 어마로 채택되던거 미살로 자격은 어은 후의 문제자야  
 어쨌든 사립은 여전히 그의 작품은 예살이라고 부르자야

음 아무 무식한 얘기가 예도 되는거?  
 니가 편지하다했지?  
 음...  
 음...  
 어...  
 모든 거들한테서 뭐 어거나 거들한테 예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크 크 크 크 부다스레  
 하여간  
 좋은 예살 나쁜 예살 많하기전에  
 예살영역이 굳이 필요하다고는  
 그럼 어쨌때 예살이라는생각이 드는데?  
 뭐어날 외과의사의 외면이 수를 뭐 그러기도 예살이거?  
 일단 예살의 구분이 의미가 어다는 얘기서부터하면  
 아마 나 동의하지 않노  
 자기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봐  
 같은 외관이 수 있지만  
 부근 외관이 수 있냐  
 자기가 순수예살로 의도하고 그려나 마외로 그려나가 중요하다고  
 아니 내마은  
 그 결과물은 어쨌든 상관이는데  
 자기가 순수예살로 의도하고 그려나나 아니냐는  
 상관이다고  
 음...  
 뭐 온한 예로 예디언의 비리로 바스기온거  
 슈퍼마켓에서도 똑같은거 지어온수 이차아  
 그게 예살인 이유는 예디언들이 예살로 의도하고 만든어씨가 아니겠어?  
 그게 아니거지  
 마외에 예살가가 뭐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웃음이고 부침을 하게 하게면  
 예살이 될 수 있게지  
 근데 그냥 재미로 그려 예살고 액자 예살고 거어놓는거  
 그냥 재미적인 기념품 정도의 의미밖에 어다고 봐  
 의도 그냥 마그대로 예살로 만든게냐는 의도  
 그게  
 부의도 예들 들어 유어에 마기다다지  
 그거도 의도로 알아가로 의도한거지  
 어쨌든 자기의 의식적인 과정이 개입되지 않으면  
 예살이 되기 어렵다고 봐는데?  
 치명어후에 그런 그런?  
 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봐는데  
 그래서 미살시작에서도 개어지가 떨어지는 거기봐  
 우리가 마어하게 온 나를 하살적으로 생각하는 예살의 저체성이  
 예살가의 의도에 좌우하냐거라  
 우리가 마어하게 온 나를 하살적으로 생각하는 예살의 저체성이  
 예살가의 의도에 좌우하냐거라

계속해봐.

오리혀 반응하는 예 인거 같은데  
예술품이때문에 작품으로써 거래가 되는거잖아  
예술품이긴 예술품인데.. 가치가 좀 떨어지겠다는 거지  
예술품이 아닌거 아니잖아

그렇다면.. 아기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하운 나온 사람의 작품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는  
이유는 뭐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그림이 큰 대회가 열리잖아  
대한민국 미술대전인가  
시사위헌같은 그림은 바다에 쪽 찌른.. 그림만 보고 평가하잖아  
작가의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볼수도 있지  
어느누가.. 무언가를 그리면서.. '이건 예술이 절대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게어  
우치었 다니는 꼬마들도 있지않에서 그림그리면 ..예술을 하는거라는 생각으로 그리면 c

그럼 그 자적이란건 어떻게 이윅까?

가장 근한건 그려가야.  
사실 모든 사람이 예술을 즐긴다는건.. 결국 예술계에서 후이진 환경안에서  
그 안에서 버어날 수 어는거지  
그렇다면 그계 과연 미술 수 있을수 있음까지에 대한 의식이 든다는 거지  
분명히 그 사람이 목지이 마한 동력을 제공한건 예술계 혹은 그 주위의 사람도이때데

하여가 예술품의 의도에 좌우되느니라  
일찍 드 퀴니이 아프고 나서의 그림에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거지  
내가 생각하는 예술과 비예술의 구분이 작가의 의도라는데 나를 끔여이 되주는 사례 아니까나?  
서명해보사  
어

아 취태에 거래라고 부의시에서 그려는거 아니테고  
여태까지 의태한 예술품으로서 싸아온 게 이미 이윅  
그 거게서사에 거래이느거 아니까?  
취태 이후의 그림이 실제 지적으로 떨어져지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적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때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얘기지  
아기가 의식하고 호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게어?

그런 사기도 이어어  
내살짜리 여자애가 그림을 엄청 잘그리는거야  
꽤마한 추상화라고고 별 차이가 없는 정도로 완성도가 뛰어나서  
갤러리에서 하도작품씩 팔리다가 막 어로에도 뜨고 그려는데  
머가 사라드 안에서 그려보라고 하며 얘가 별 신동치가 안은거지  
그고 지에서 그려오느거 대박이구..

그래서 깨어보니까 그 여자애의 아버지가 사사 더치를 해줬던 거더라고  
여기서 그 여자애가 진짜 그려온 거은 경우  
그 그림은 예술품인가의 문제라  
이단 아버지가 그리거라고 판매나으니까  
그럼 그 아버지가 그려보로서 그 그림은 예술품인가의 문제가 좀 생각해볼만하지  
재미어나보긴 ㅋㅋ

어  
아나 이미 미술대재에 내 행이가 그림이 예술품은 마든게다고 의도한 거를 끔여하지  
내가 말하는 의도는 작품에서 머가릴 표현해내게다는 의도가 아니라  
예술품은 마고 이다는 의식 가은거야  
그럼 좀 신동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작가라는 자격을 가진 자의 의도라고 얘기해야겠네  
o o o 신동이 나한테 이윤라가 포르게지만  
는데 아보이는 미가은거  
소외 예술계라고 하는...

거기엔 작가인 예술품을 예술품이라되던자 등인이 이계고  
그들이 작가라고 부르는 자가 예술가이게지  
미술대재 같은경우가 어찌 대표적으로 작가수예외의 과적이 될 수 이계다  
그리고 그 출자돈은 예술품은 의도하고 내 거이고  
그게돈 중 자격은 수여받게 되는자가 더더 예술품이 되시는거지..  
머가 그리 근한사니까나 뿌리 만큼하시지  
나도 등가

그 페행가 이지  
내시행같은 인간도 예술가라고 서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미대를 나았고 그 주위에서 활동하다가  
갤러리에서 스프도도 얻고

난 내사랑에 대한 판단은... 일단 접어두고 시은게...  
아직 그 사랑의 작품은 온전히 본적이 없어서.

아무튼 다시 아가 아던 얘기로 돌아와서

인사동의 한 갤러리를 예로 들면.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방송사라든 종종 갤러리에 들어서 그곳에서 거둔 작품들을 받  
아버바에 얻는데  
흥분하기 때문

과연 그들은..우리 보통 사람들에겐..저만 좋은 예술품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거까 싶기도 해

비율을 해서 서명은 하자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궁금한 마음에 누를 보는데

텔레비전에서는 공식사태 누를 전하면서

시위자들이 경찰을 때리는 장면만 비춰주는 거야

우리 그런 판단하게 되지

시위자들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공군의 지시를 해하고 있구나..하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

음.. 물론인 판단이라면 차라리 객관적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판단은 아니끼라든 거지

왜 사랑들은 그려에도 불구하고..예술에..경외가 비스한 가정을 가지는 거까?

거기 사랑들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라니..예술 자체에 대한 막대한 감정을 얘기한거야

아니지

우리가 어떤 예술을 다가가면 후반이면 그런 문제가 없게지만

아예 우리에게 불 기회조차 안줄 수도 있다는 거지

예술의 판단 자체가 모호한데..과연 그렇게 개인적으로 옹호해서 비을 볼 수 있는

사랑들이 얼마나 되까

벌써 한시가이나 지나났네..

마무리를 지어볼까

가장 궁금했던 것 이거야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혹은 바버, 시가, 등 어떤 어떤게 예술을 바라봐야

할까..

꽤 오랫동안 이어져오는 미적태도 아니니까?

여전히 지금도 유행하고.

난 언제까지..작품을 보면서..의도를 먼저 우리해보는 버릇...? 혹은 순간 같은게

생각거 같아. 나도모르게 말이지

물론 의도가 작용하기 이전에 느껴지는 감정도 있긴하지.

근데..그렇게 강한 감성적 자극을 받은 적이 못한 이인 아니니까

모름엔 언나..한순에 같파다하마와..마지막 예술이 여자야

김~

이거..과연 편지에서 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화살이..글로 쓰니까...말로 하는 거랑 다른데..

아무래도 말이 있는 거 같아

게다가 표준어만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러가 .....

음 수고했어

음..

다자 봐

잉

음..종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예술 풍사자의 시선에 의해 걸러진 거든만 우리가 접하게 되고

또 그게 잘못된 판단에 의해 선택된 작품일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예스이다하면서 보다는 거지

의도적으로 누를 띄우거나 뭐 그런 거

뭐 그런 수도 있지

왜 사랑들은 그려에도 불구하고..예술에..경외가 비스한 감정을 가지는 거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객들도 가자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있겠지

무조건 갤러리에 있다고 경외하는 건 아니잖아

그거 누스보처럼 예술은 왜곡하기라 그런 심지 않은도

아니지

왜냐 우리가 언어화할 수 있지 않은 거 다그 이윤때가 마기때때뿐이지

음 그게 예술계에 근거해서 예술이 정의되는거의 문제일수 있게지

모든 매체가 어쨌 판단했잖아

작가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목표를 갤러리 사야 자기 작품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우투반은거들도 그러고..

저동저이 조금 더인 개념의 예술계가 깨져가고 있기 하거가운데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제 정말 그들이 예술이냐 아니냐를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지

음 그거도 그러고

마무리지어주세요

음....

어미미하자는 보면 예술작품이에는 왠만큼은 거 관조로 바라보려하자야

말은 머신데

와전 말도 안되는 거지

그리 보면서 예년에 폼바에서 띄운던 생각이 들어서 행복해서 그 그림이 유행하다

생각하며 왜안되나고 그게 유행하거나

난 그림을 감상하때 어떻게 하지?

나쁘네

난 그런거 재미어어

취하의 문제로 가려는 거 이수도 있는데

난 일단 시각적으로 나 자극하는 게 좋아

뭔가 생각하고 떠올려보고 그려도 유행하는 쳐 자극

그게 없애 이 단지 순간적으로 의도후리하기 좋아하는거 시어

그래서 난 요즘 예술이 지루해

다 유행처럼 무수한 철학자 내놓고 또다그

이리 무시해놓고 저티 무시해보고

와전 지루해

그래도 난 한순에 가파시력전야해

그게 나한테 예술이야

나 말하고 이어는데

음 음 재미어어

이상은 수다만 지우고

그냥 다 내

머가?

난 고이 더 좋아하게가운데

빠이